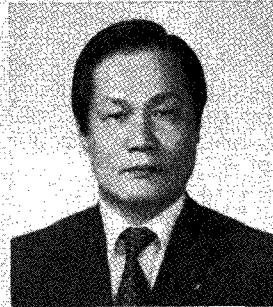


原電地域 疫學調查 客觀性 없다

— 성급한 結論은 事業推進에 악영향 —



金 善 和

〈韓國原子力產業會議 常勤副會長〉

최근 신문은 靈光원자력발전소 사택경비원 부인의 「뇌 없는 태아 유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반핵단체로 알려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조사한 영광주민의 역학조사결과를 대서특필함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뇌아나 기형아의 출산 · 유산은 과거에도 종종 있는 일로서 이것을 굳이 배우자의 직업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다.

더구나 남편 김씨는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4km 거리에 있는 사원사택 경비원으로서 발전소의 어떠한 영향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한 두해 전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작업인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나 그가 일한 작업장소는 방사선과 무관한 터빈 · 발전기건물 내로 알려지고 있어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견해는 임산부가 직접 방사선에 과다피폭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그의 남편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영광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역시 원자력산업을 추진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억지 주장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420 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은 이같은 피해를 모르고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만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역학조사가 반핵단체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도 공정성을 잃은 처사이거나와 그 발표내용도 타당성이 희박하다.



◀최근 무뇌아 유산과 관련하여 각 일간지에 보도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사들.

이 발표가 인정을 받으려면 표본의 추출에도 엄정을 기해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조사집단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이전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분석하거나, 지역적 조건이 유사한 다른 집단을 골라 두 지역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특정지역의 편견적인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방사능 오염의 초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킬 뿐 아니라 원자력계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하며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끼치게 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원자력산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산업계가 아니고 바로 전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혹자는 지금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데 무슨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냐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 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의 예비전력은 105만KW로서 원자력발전소 1기분에 불과했다. 이때 만약 원자력발전소 1기가 고장을 일으켰다면 당장 전력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영광 3,4호기를 착공하려는 것은 7,8년 뒤인 '96년의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 팔장을 끼고 있다가 그때 가서 무엇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 할 것인가. 석탄발전소나 석유발전 만으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대안도 없이 원전을 반대하고 국민에게 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착실히 그때에 대비하는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